

대일무역 역조 진단에 대한 고찰

-미즈노 준코편「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문제」
보고서 검토를 중심으로-

2010. 7.



이 자료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 要 旨 -

- 한일 교역정상화 이후 지속되어온 대일무역 역조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본과의 기술협력 및 일본기업의 한국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대해 ‘적자의 원인은 일본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 보다 일본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많고, 수입 주체도 한국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도 적자 삭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일본 JETRO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된바, 보고서의 분석과 함께 한층 발전된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과제를 도출함
-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 등 대일 무역역조의 거시적 원인 △한국의 기술선택 전략에 따른 무역역조 △LCD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국산화 사례 등을 담고 있음
-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결론 도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부품소재산업기반 구축의 중요성 △중소제품에 대한 과소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한국의 무역적자에 단한 인식 환기 △협력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기반강화 △다가올 그린 혁명에 대비한 한일 양국의 산업협력 체제 강화 등 무역역조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한일협력을 주문

※ 본보고서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일본 산업기술 전문가 회의체인 「재팬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일무역 역조 진단에 대한 고찰

-미즈노 준코편「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문제」

보고서 검토를 중심으로-

2010. 7. 7.

I. 배경

- 한일 교역정상화 이후 대일무역 역조가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는 대일 무역수지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한국의 부품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일본에서의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며, 일본과의 기술협력 및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현지생산을 늘리는 등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
 - 이러한 대일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고 각종 대책이 강구되어왔으나, 양국 간 경제구조의 문제로 오늘날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발간된 ‘그간의 한일무역적자에 대한 책임과 해법을 재조명’하는 미즈노씨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보고서 자체에 대한 검증과 함께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한일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함
 - 분석대상이 된 문건은 일본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일본과의 기술네트워크 형성’ 연구회의 초년도 연구보고서로 우리 정부의 주장에 비판적이며, 향후 경산성을 비롯하여 외무성 등 일본의 입장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음

II. 보고서 내용

□ 1장에서 한국 측이 대일 무역역조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일역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

○ 과거 장기간에 걸친 대일역조에 대한 한국 측의 기존의 원인 분석 및 대응 논리의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 대일역조의 최대 원인은 일본에서 부품 및 소재를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여 현지생산을 해야 함

- 일본기업을 위해 부품 및 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대한투자조건을 개선하여 일본기업을 유치

○ 그러나 부품 및 소재의 대일수입 비중은 50% 정도에 불과하며, 기계류의 수입이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순히 부품 및 소재가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들 대일 역조 원인이 되는 상품은 대부분 일본의 대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역할은 크지 않음. 한국의 수입 주체도 삼성전자 등의 거대기업이 중심임

○ 한국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일본기업의 투자 희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가 어려움

○ 한국정부는 일본에게 각종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자조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기업의 노력도 미진한 것이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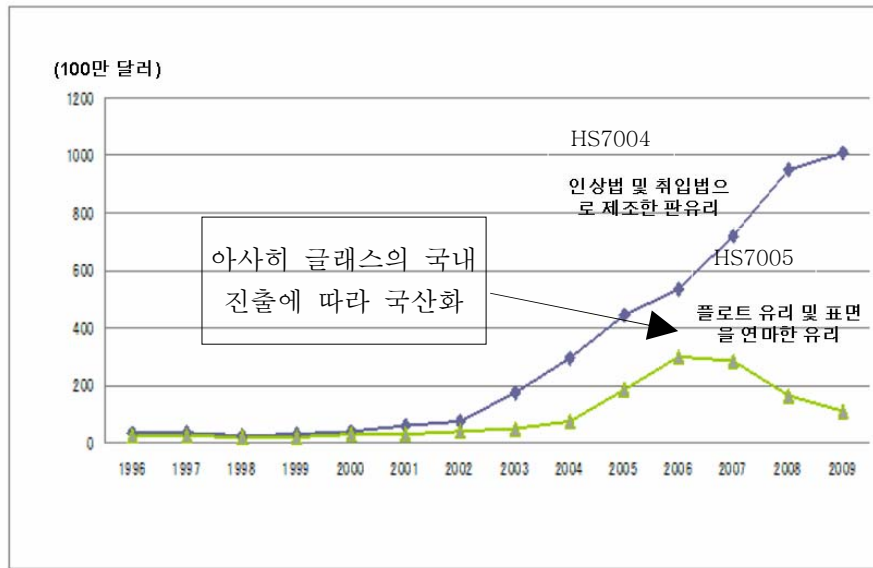
- 한국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지시, 요구, 요망 등의 수위가 낮아 향후 대일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거나 대일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시장을 피한다면 대일역조 해소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 2장에서 역조의 근본 원인이 한국의 기술 선택 전략에 있다고 강조

- MTI 무역 제품 분류 기준으로는 부품 및 소재 관련 세부 제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HS 기준을 활용해서 분석
 - 김&노, 대일적자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의 정책 과제, 2008.9, 한국은행 조사국 보고서의 방법론 및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
- HS 코드 85의 전기기기 및 부품, 72의 철강, 84의 기계류가 대일 무역적자가 큰 품목이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
- 전기기기 및 부품에서는 HS 8542의 집적회로의 대일수입은 2008년 31억 달러로 크지만 싱가포르, 대만, 중국, 미국에 이어 제5위의 수입국에 불과하며, 이 집적회로는 대기업 제품임
- 철강에서는 HS 7208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이 2008년 18억 달러 수입. 이것 또한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며, 일본은 한국 이외에도 수출하면서 양산규모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입수요 대체만으로는 그러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
- 기계에서는 HS 848620 반도체 제조 장치나 HS 848630의 LCD 제조장치 등의 수입 규모가 크며, 특히 LCD 제조 장치는 일본의존도가 크며, 이것이 대표적인 대일역조 품목이며,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을 한국기업이 선택하여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관련 기계 장치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임
- 단, LCD 산업의 경우 생산 확대와 함께 관련 분야의 규모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 지고 정부의 국산화 정책도 추진되면서 국산화율이 상승하고 있음. 즉, 대일 수입은 양산 효과가 기대할 수 없고 투자회수에 기간이 소요되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김&노 보고서와 같이 ‘기술적 후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아님

한국의 대일 유리 수입 금액 추이



- 한국은 기계기술 도입국인 일본과 함께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 무역적자. 해당국의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물건을 수입하지 않으면 제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확대되는 것임

□ 3장에서는 LCD 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일역조의 근본 원인에 관한 저자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음

- LCD 패널 관련 부품, 소재, 제조장치의 경우 한국내 생산규모의 확대와 함께 한국정부의 국산화 정책, LG 및 삼성의 산업클러스터 전략에 따라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2009년 말 현재 약 80%가 국산화된 것으로 보임
- LCD는 일본 기술을 도입한 초기에 대일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산규모가 확보되고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늘어나면 대일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사례
- LCD 산업은 기술·설비 집약형 대기업 분야인 것도 고려하면 한국정부가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의 LCD 관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진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약간 빗나간 요청임

Ⅲ. 보고서 문제점

□ 각종 문헌 조사나 한국의 대일역조 개선 시책 등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여 단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

○ 한국이 그동안 대일 역조의 원인으로 부품·소재만 생각해 기계류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고 했지만 각종 연구에서 기계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책적으로도 LCD 관련 기계 장치 등의 국산화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전기전자 산업과 기계류의 한일 산업내 무역 구조를 연구한 다수의 문헌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간과한 논리전개

□ 한국은행의 ‘대일 무역적자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의 정책과제, 2008, 김진용·노원종’ 보고서를 비판하면서 한국기업이 기술적 후진성 때문에 대일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산업전체적 차원에서 보면 과장된 논리이며, 자신의 분석과도 모순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한국기업이 일본 기술을 모방했기 때문에 대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신의 또 다른 주장과도 모순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으로서는 기반 산업이 국내에 미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계, 부품·소재 등을 활용하는 것임. 대일 기술 의존이나 대일 수입 확대를 우려해서 신제품, 신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한국 산업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임

○ 즉, 한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반 산업의 빈약은 기술적인 후진성, 산업의 기형 현상으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의 경우도 국내에 기계, 부품·소재, 조립 분야가 망라되고 독자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LCD 산업 클러스터 등의 구축에 주력해 왔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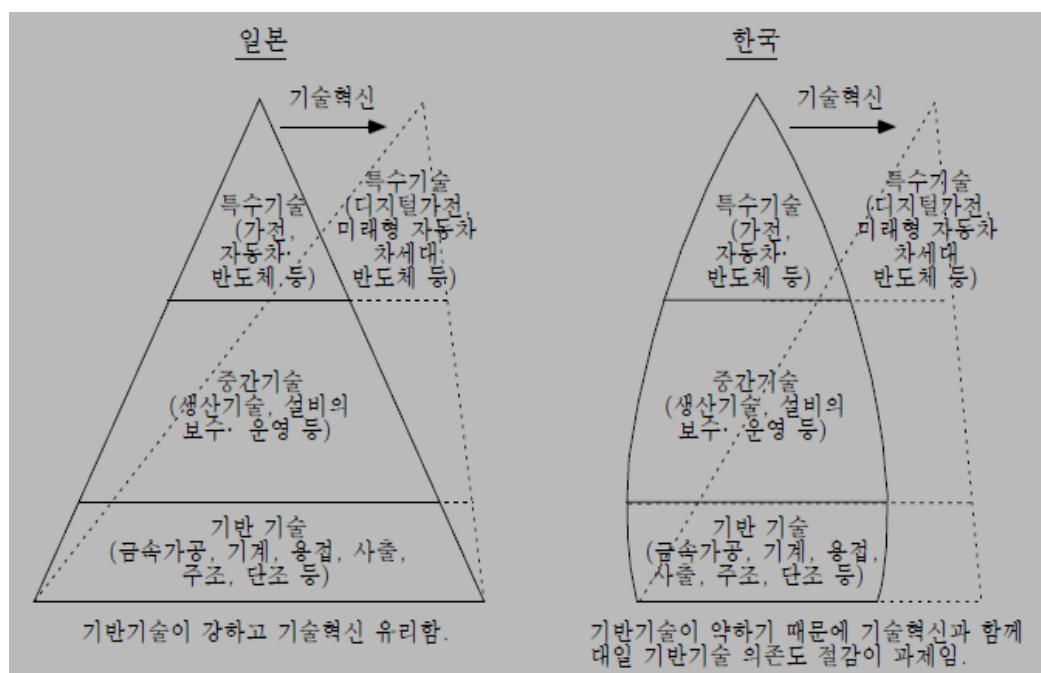
- LCD의 경우 80%의 국산화율이 달성되었으나 국산화한 부품이나 기계 자체에도 일제 부품·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빛나간 요청’이라고 결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유치도 중요한 과제

□ 일본 중소기업의 대한 투자 유치가 의미 없다는 주장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과소평가 이외에 보고서 자체의 대일역조 원인 분석과도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있음

- 대일역조의 근본 원인을 한국이 일본 기술을 모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소기업의 유치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대기업이 다수의 중소기업 부품·소재를 집약한 형태로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면 이는 일본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수출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한일 기술구조 비교



이지평, 한일 차세대산업 경쟁 과열된다, LG주간경제, 2004.10.13

- 부품·소재나 기계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조직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공법·재료를 실험하는 가운데 발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약할 경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한일 산업기술 구조를 비교할 경우 일본에 비해 한국 산업은 기반 기술이 빈약하며, 기술 혁신으로 중간 기술, 특수 기술이 변화할 경우 다시 일본의 기술을 선택하고 의존해야 할 패턴이 반복됨

- 최근의 경우라면 전자, 자동차, 기계, 소재 등 기존 산업에서 그린 혁명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다시 일본제 기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대일역조가 되풀이 되는 것임

- 한국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피하면서 수출제품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주력해야 할 입장이지만 그때마다 대일 기계류 수입이 확대되고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이 낮아지고 대일역조가 급증하는 패턴을 보인 것도 이와 같이 국내의 자체적인 이노베이션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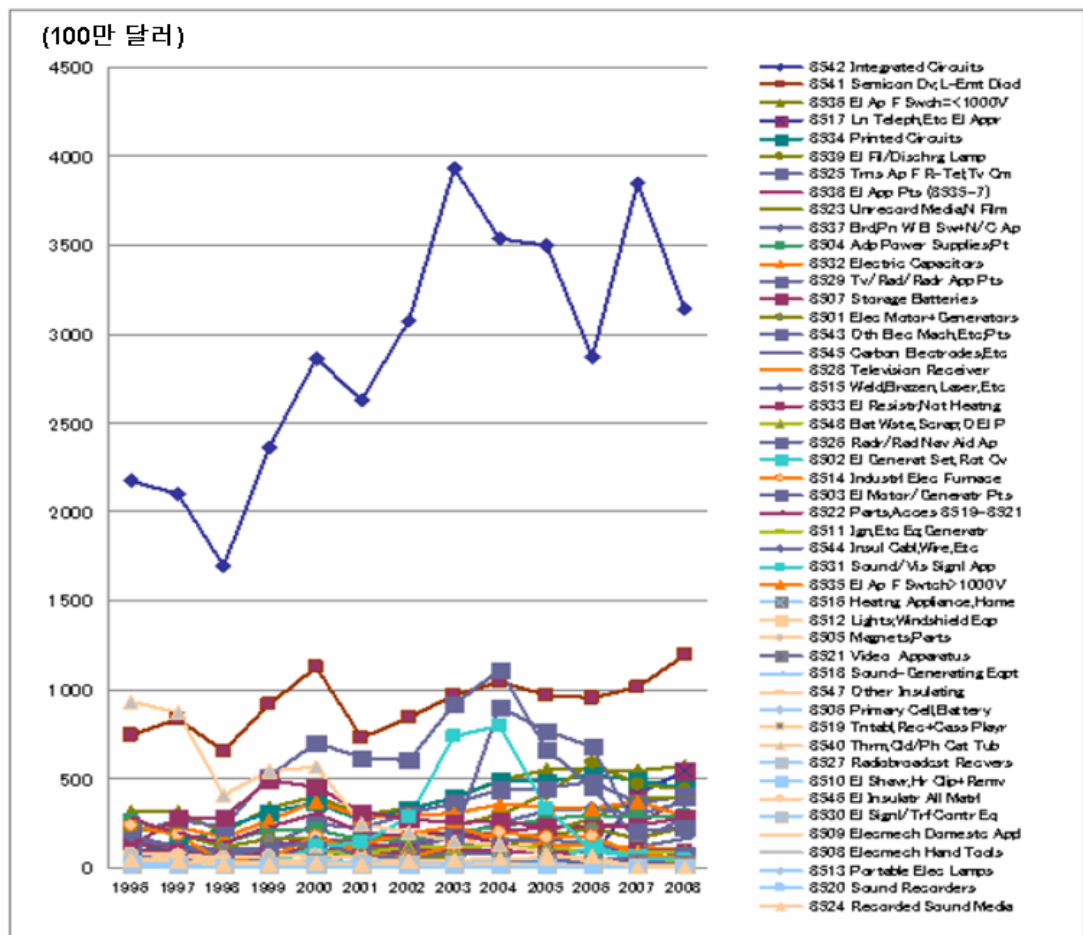
- 이를 고려하면 대일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소기업도 유치하면서 기반 기술을 강화하여 조립, 부품·소재, 기계 등을 망라하여 자체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 미즈노씨는 HS 분류 기준으로 대일 역조의 ‘주범 품목’에는 중소기업 품목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분석이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HS 85 전기기기과 부품 분석에서 대일수입이 가장 많은 HS 8542의 집적회로가 대기업 제품이라고 지적하여 마치 HS 85 품목 전체가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음

- HS 85의 대일수입 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 중 HS 8542은 31억 달러, 비중 30% 정도이나 나머지 70%가 대기업 제품인지, 중소기업 제품인지 분석이 없음
- 철강 산업, 기계 산업에 대한 분석에서도 대표 품목만 지적하여 이것이 대기업 제품이라고 하여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분석 없이 중소기업 제품의 수입대체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임
- ‘중소기업 투자 유치 무용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체 품목 중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비율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유치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의미가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전기기기과 부품 분야의 대일 수입 추이



○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 수입은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으나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잡다한 품목이 모여서 막대한 금액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 부품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HS 85 전자 분야 제2위의 수입 품목인 HS 8541의 발광 다이오드는 원래 중소기업형 제품이었다가 최근 대기업화한 것이지만 사파이어 기관 등에서는 중소기업(新光社) 등도 존재하며, 제3위 수입 품목인 HS 8536은 개폐기, 퓨즈, 플러그, 커넥터 등을 말하며, 대기업 제품이라기보다도 중소기업형 제품

□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품·소재란 최종소비재 이외의 제품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엄밀한 정의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적자의 원인이 부품소재에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무리가 있음

□ 또한, 한국이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한다는 인식에는 오해가 있음

○ 한국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대한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품소재산업의 기반강화에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기여해 주기를 원하는 것

IV. 시사점 및 향후과제

□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한일경제관계와 정부 간 협상 등에서 대일적자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서 자체의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는 미즈노씨의 보고서는 우리의 논리와 인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논점들을 제공해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경제발전을 해 왔고 대일무역적자는 이러한 이익향유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이 있음

○ 아울러 무역적자 그 자체에 너무 얽매이기보다 △일본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일본의 기반산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일본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 여지는 없는가 △양국 기업의 효과적 분업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결합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공동해결방안은 없는가 등의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

☞ 보고서 자체의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그 동안 한국이 가지고 있던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고, 무역적자 그 자체에 얽매이기보다 새로운 한일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시도하는 계기로 활용

□ 대일무역역조의 원인 진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일적자의 원인이 부품·소재·기계 그리고 자본재의 다량 수입에 있다는 점은 사실

- 다만, ‘부품·소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품·소재라는 것은 최종소비재 이외의 제품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그리고 부품·소재·기계 부문의 대일역조를 강조하던 것이, 언제부터가 언론 중심으로 부품·소재 중심으로 변질된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대일적자의 원인으로 ‘부품·소재’에 ‘기계’를 추가하고, 통상적으로 최종소비재 이외의 중간재를 의미하고 있음을 부연설명

□ 대기업을 비롯한 한국기업의 기술 선택이 대일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대기업 등이 일본의 기술 방향이나 일본이 개척한 분야를 참조 및 모방하면서 세계 각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 자체를 문제로 삼기 보다는 이러한 전략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LED,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등 일본이 개척해 왔던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여 초기에는 일본제 기계나 부품·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지적대로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대기업 등의 차세대 전략에 시차를 두지 않고 기계류,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 기반이 신속하게 구축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등의 차세대 전략과 중견 및 중소기업의 차세대 전략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나 지식 공유 기반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고도 중요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부품소재전용공단의 조성과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유치는 한국의 기반 산업을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대일무역역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전망
- ☞ 한국기업의 기술 선택이 대일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을 유도 등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의 기반강화에 주력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을 포함한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제품이나 신사업의 개척 초기부터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LCD 등을 시범사업으로 삼아서 산업조직의 체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산화된 LCD 부품이나 기계에 소요되는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를 모색하면서 LCD 산업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제고
- LCD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LCD에서 OLED 등 차세대 제품으로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LCD 클러스터가 혁신력, 연속적인 제품 진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진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발전하도록 유도
- 이러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육성 및 발전 경험을 정책 스킴 등으로 축적하여 기타 산업 분야로 확대 응용
-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노베이션 시스템 강화를 통해 新사업 개척 초기부터 국산화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
- 아울러 다가올 그린 혁명에 대비하여 한일 양국이 산업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Win Win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이 중요함
- 일본 중견 및 중소기업의 유치와 함께 한국기업과의 공동개발, 한국기업의 일본기업 출자 및 매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 한일 대기업간 협력이나 중소기업간 협력과 함께 중견 기업과의 교류도 강화
- 일본의 중견 및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유인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유도할 필요도 있음
- 일본 주식시장은 만성적인 정체에다 각종 규제가 심해져 주식공개(IPO)가 극도로 부진을 나타내고 있어서 한국 증시 상장을 희망하는 중견기업도 많아질 것으로 보임(IT기업인 네프로 아이티가 코스닥에 상장하고, 현재 클릭증권·SBI비즈니스 서포트가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외에 복수의 일본기업이 상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대일무역적자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업이 국내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투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대일수출 촉진 등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향후과제
-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생산 활동 자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소재의 대일무역적자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우리가 바라는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님
- ☞ 대일무역적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다가올 그린 혁명에 대비한 한일 양국의 산업협력 체제 강화 등 Win Win의 관계를 구축 하는 노력이 필요